

제 36차 남극조약 당사국 회의 (ATCM)

중요 장면 재연 예고편



죄송합니다

남극사업 국가대표회의를 어제 끝냈습니다
4차 모임 때 해설이 덧붙여진 복기 방송 준비
하겠습니다

남극조약 당사국회의

국제조약으로 수립된 남극 관련 거버넌스
의 정점에 있는, 정부대표로 구성된 의사
결정기구



남극조약은 시스템

단일성분, 일원 체계 아님

주요 구성성분; 환경보호위원회 (CEP),

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(CCAMLR)

남극조약 당사국회의

연례회의를 환경보호위원회(CEP)와 함께 개최

올해 36차 회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16차 CEP와 함께 개최

우리나라도 1995년 18차 회의 개최

남극조약 당사국회의의 운영

CEP와 몇 개의 분과회의 (수색과 구조, 운영, 법제도 등)

제 1주 총회 개회 후 곧 산회, 분과 논의 시작

제 2주에 분과 보고를 듣고 결정하는 총회 (plenary) 구성

결과물로 각종 resolution, decision 채택

* 배경에 연중 활동하는 ICG (inter-sessional contact group)의 존재

36차 남극조약 당사국회의 주요 장면

남극조약 당분간 무슨 일을 역점 추진할 것인가; 다년간 업무 계획 (multi-year strategic work plan) 수립



환경보전과 북극극지연구소

남극보호구역의 관리

과학연구지원을 위한 협력

수색과 구조 체계 정비

회원국 활동 보고와 새로운 계획 등 다양 의제

36차 남극조약 회의를 계기로 돌아보는 우리나라

이제는 지난 몇 년간 제2기지 설명과 협력 요청
수요에서 자유로와질 수

보고하는 나라에서 제안하는 나라로

소수 ICG에 선택적 전략적으로 참여 필요

이슈 페이퍼의 공동/독자 생산 필요

중견 국가로 위상 확립; 기존 주도국 외에 동료
중견 회원국과 전략적 제휴 관계 수립도 대안

36차 남극조약 회의를 계기로 돌아보는 우리나라

우리가 이미 기반이 있는 분야를 활용해야; 환
경보전과 연구, 연구와 지원 분야 국제협력

새로운 동향 국내 확산 잊지 말아야; 각종 규제
와 요구사항, 남극해사안전, 정보의무제출, 생
물자원활용 등

4차 모임 때 뵙겠습니다